지역 소식통

도시재생대학 공무원과정 완료… 16개 팀 33명 참여

정읍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시재생대학 공무원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화예술, 지역경제, 공동체육성, 시장관리, 관광시설 등 16개 팀 33명이 참여했다.

강의와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임경수 前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과 조준배 전주시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지혜영 서울시 마을만들기 이사가 강사로 나섰다.

임경수 강사는 강의를 통해 주민들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계획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준배 강사는 '도시재생, 협치의 힘'을 지혜영 강사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나의 협치 선언'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부안군 주민보호훈련

부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2020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의거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군은 이날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소집을 통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어 주민보호를 위한 도상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한빛원전 방사능사고에 대비한 관내 15개 구호소를 전북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함께 현장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군-하나투어 '손잡다'

패러글라이딩 등 고창 레저스포츠 단독 기획전 11~13일
숙박 결합 상품까지…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고창군이 대한민국 1등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손잡고 전국민 대상 '한반도 첫수도 고창 레저스포츠 관광 기획전'을 출시한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고창에서 펼쳐지는 레저스포츠 체험 상품을 11일부터 13일까지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방장산 패러글라이딩과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암벽 할매바위 클라이밍,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한 운곡습지에서 펼쳐지는 노르딕워킹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고창 레저스포츠 단독 기획전'이다.

단순 체험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숙박 결합 상품까지 출시된다. 특히 최대 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지역 홍보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높을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고창군 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부터 도내 초·중등학교 수학여행 팀을 다수 유치해 레저스포츠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식당과 주요 관광지를 홍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 9월 위메프를 통해 고창 레저스포츠 상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수학여행 유치와 레저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이번 레저스포츠 기획전은 고창의 관광 브랜드가 한층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레저시대 필수코스 고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오랜숙원… 도비 4억원 확보

부안군이 전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부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되어 도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저장·선별·포장·출하 등 일괄처리 기능을 갖춘 유통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억원 등 총 8억원이 지원된다.

부안조공법인은 2012년 법인 설립후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개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히 이번 공모사업 과정에서 군과 참여조직(6개농협조합장), 조공법인의 협업과 소통, 철저한 준비로 농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 판로가 막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농업 기반을 확대시키는 파급효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품질의 규격화와 안정적인 물량공급, 생산자 조직화가 가능해져 농가소득과 지역 농산물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광주 한울초 범하은 양 대상

전국 최고의 어린이 판소리 등용문인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범하은(광주 한울초5) 어린이가 '춘향가中 이별가'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고창군은 지난 8~9일 동리국악당에서 '제33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열었다.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 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의 등장을 알리는 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22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고창 동리국악당 장내를 뜨겁게 달궜고, 최종 7명이 본선에 올랐다.

대상을 받은 범하은 어린이는 전세계에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 공부는 물론이고, 영어 공부에도 힘쓴다는 당찬 꿈을 가진 소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동리 신재효선생을 비롯해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술의 성지다"며 "앞으로도 꿈나무 소리꾼들의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범하은(광주 한울초5) 어린이가 '춘향가中 이별가'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정읍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 내장산을 찾은 단풍객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가졌다.

정읍시, 내장산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16일간 5개 업체 참가, 구절초 쌍화차 등… 2000만원 판매고

정읍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 내장산을 찾은 단풍객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정읍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유통경로를 확장해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과 정읍역에서 열린 이번 홍보판매장에는 정읍로컬사업단과 단풍만나원, 내장산단풍농원, 싸이프러스, 샘실떡방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단풍미인 쌀을 비롯한 귀리 새싹 가루와 장아찌류, 구절초 쌍화차, 잡곡 등 50여 개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해 2,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과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

특히, 타지역 소비자들과 주문 판매처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농가소득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농가소득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서관사업소 "잠시나마 쉬었다 가세요"

내달 23일까지 프로그램 다채
문화가 있는 날 등 5개 과정

정읍시가 겨울을 맞아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중앙도서관에서 '겨울 온다'라는 주제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겨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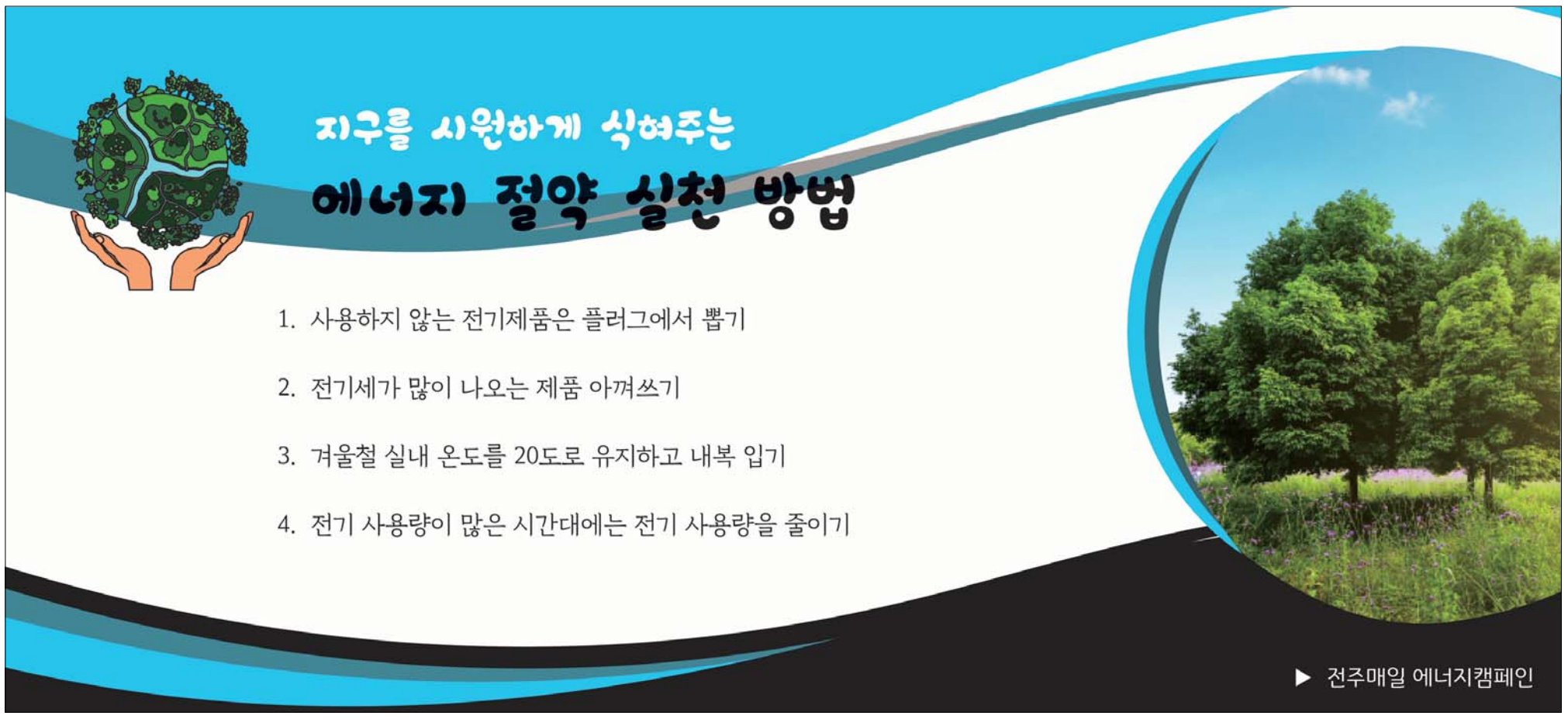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은 ▲미움받을 용기 ▲도서관 Lunch Break ▲자연이랑 겨울이랑 ▲ 아트 잉글리쉬 ▲문화가 있는 날! 등 총 5개 과정이 진행된다.

'미움받을 용기'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자아경험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와 아들러 성격검사 등의 개인 상담이 진행되며, 비용은 도서관에서 부담한다.

또한 '도서관 Lunch Break'는 성인들을 위한 점심 나들이 시간으로 다양한 드로잉과 표현재료를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연이랑 겨울이랑', '아트 잉글리쉬' 등이 진행되며, 오는 24일과 25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미리 메리크리스, 플라워 캔들 만들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개별 욕구 충족을 넘어 다양성이 확장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정읍시청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팀(☎539-6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